

구역공과 제3권 (4단원 :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0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 본문 : 고린도전서 15:1-11
- 요절 :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3~4)
- 찬송 : 144장, 155장(새찬송가 165장)

공과내용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일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을 붙잡히 여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능력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찌 그토록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겠느냐?’ 고 그들은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으며, 무력(武力)을 숭상하던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나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십자가의 죽으심 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받은바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24) 하신 대로, 죄사함의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롬 5:10) 하신 대로, 하나님과 원수 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3) 하신 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넷째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 2:15) 하신 대로, 죽음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만 낙심천만하여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의 열정과 복음 전도를 위한 헌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성도들이 받은바 은총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 범 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롬 4:25)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납되었고,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하신 대로, 친히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병들거나 쇠하거나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눅 24:46~48)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 주고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본디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나중에 그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갇힌 몸이 되어 아그립바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한 변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행 26:22~23)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직 이 터전 위에 지은 신앙의 집이라야 시험과 핍박의 바람이 불더라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